

# 전북 농정 정책 발굴 · 추진 최선

##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비대면 온오프 방식 개최

전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최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기 첫 번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를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오프 방식으로 개최했다.

'삼락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 농정의 의사결정에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6년(제1~3기) 동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등 전북 농정민의 차별화된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켰다.

또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분야별 농정 현안과제 토론 및 대안 제시,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개정 건의 등 전북 농정 및 대한민국 농정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축산, 수산 등 10개 분과와 농정현안 TF팀과 운영협의회로 구성하고, 행정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연 50여회 이상 토론 등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제4기 위원회는 도내 절반이 넘는 여성 농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여성위원이 위촉직 44%, 신규위원이 53%, 청년농업인 등을 다수 포함했으며, 앞으로 2년간 전북 농정의 주요 현안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4기 민간위원장은 제3기 위원장을



전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최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4기 첫 번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를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온오프 방식으로 개최했다.

역임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상철 회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운영협의회는 위촉장 수여, 경과보고, 민간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1~3기 위촉 위원 345명을 모니터링(설문)한 삼락농정 진단 보고, 제4기 분과별 의제에 대한 방향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운영협의회를 시작으로 4기 삼락농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탄소중립 및 농업기후 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분야별 의제를 상정해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위원장이 최후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정의 첫 번째가 삼락농정·농생명산업인 만큼, 농민이 행복한 농업·민들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문명의 시대의 전환'을 위해 삼락농정이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4기 삼락농정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철 위원장은 "삼락농정의 성공은 민·관이 함께 하는 협치에 달려 있다"며 "4기 위원회에서도 두 개의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전북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소통으로 현장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재의 농업·농촌의 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이삭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4기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및 농업기후 대응' 등 국가적 아젠다에 우리 도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북형 삼락농정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치유(힐링) 농촌체험 ·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 전북도, 치유농업 범부처 협력 필요 · 치유농업사 양성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전북도가 치유(힐링) 농촌체험관광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찾는 세미나를 열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7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협의회와 공동으로 '치유(힐링)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방식과 병행,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자연, 경관, 농촌문화 등을 함유할 수 있는 도내 치유(힐링)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제로 치유 농촌체험·관광 이미지 구축, 품질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 등 연계, 농촌현장 과제로 언택트시대 수용여건 개선(시설/프로그램) 등 시장변화에 대응, 활성화 과제로 쉽지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습득, 신체의 활력 증진 등 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의 다양성 인식과 활용 확산 등 3개분야 구체적 방안이 제안됐다.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자인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는 "지난 1년간의 치유농업 및 치유농촌관광 언론보도 키워드가 '코로나, 힐링, 치유, 활력, 교육, 마음, 체험'인 바, 농촌

은 먹거리 생산공간에서 농촌의 유무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치유가 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 변모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의 여가활동 수요가 '마음의 안전과 휴식'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치유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정수연 사무관은 국내외 다양한 치유농업 선진사례를 소개하며 "농업농촌과 도시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치유농업은 범부처의 거버넌스형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게 될 '치유농업사(1·2급)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치유농촌체험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 분비기능 47%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28.1% 감소 등 탁월한 의학적 효과를 증명한 바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치유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치유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 주제발표에 나선 우리땅걷기 신정일 대표는 "허준은 동의보감에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고 했고, 다산 정약용은 걷는 것을 많은 즐거움 즉, 청복(淸福)이라고 했다"며 우리 땅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변산 마실길, 무주 금강무등도원 길, 울창한 숲 견지산 길, 섬진강 종류 장구목 가는 길 등 4곳의 숲어는 전북도 치유여행길"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정책세미나는 폐교 활용 고창 책마을해리의 책읽기·만들기 체험(이대건 대표), 익산 마루산늘품치유농장의 장애인 치유농촌체험(이혜숙 소장), 완주 경천애인 권역 판매소 체험(김종춘 대표), 진안 고원길 경험 및 반려동물 길 전망(정병귀 사무국장),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치유 음식·체험·건강 프로그램 활동과 전망(김대근 부장) 등 5곳의 현장사례 발표와 전북 치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제언(권이현 센터 농촌관광부장)으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자동차 부품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희망기업 5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북도가 도내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자동차 부품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래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 전기·전장부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60억원(2021년 30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순도비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부품·소재·시스템의 고도화와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해 '완성차업체 연계 협력형 R&D', '기업 주도형 R&D(혁신형, 고도화형)'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완성차업체 연계 협력형 R&D'는 부품기업이 주도하거나 완성차업체와 협업해 친환경차, 자율차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소재 및 시스템 기술 등 사업화 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 시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업 주도형 R&D'는 기업에서 생산중인 부품, 소재, 시스템의 고도화 기술, 신규영역 특장차 및 시스템 기술, 단계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소재·부품 고도화를 위한 분야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7일부터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

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5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 조사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까지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별도의 전문가관에서 수행한다.

전병승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함께, 향후 매출 확대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 어업인 생명·재산 보호 위한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는 불철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 등으로 인한 어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어업인의 인명피해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총 5억원 예산을 투입, 자동소화시스템, 구

명조끼, 초단파대무선전화, 선박자동인출장단말기 등 총 362대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선사고 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9개에서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개로 확대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전북도가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와 태권도원 홍보를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한다.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는 건설사·금융사 등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박람회로 올해 8년째를 맞이한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전시와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태

권도원 홍보는 행사장 '부동산 투자/컨설팅관'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민자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등 설명 자료를 비치하고, 홍보 동영상(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 방영과 무주군·태권도진흥재단의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라북도 태권도원 민자지구위원 최원철 한양대 교수가 특별히 참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관광휴

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특별계획구역이다.

투자자가 제안하여 일괄 또는 부분 개발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북도의 승인을 거치면 계획안이 확정된다.

허용 용도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 등이다. 특히, 지난해 민자지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해 도로와 태권도원 벤처, 헬리자파크 등의 시설을 무주군에서 공영 개발로 마무리하는 등 민자지구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제천위원장  
양현섭

- 참가대상 전국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 전라북도, 꿈드래깅장애인협회,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의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